

더 많은 동물을 배우고 싶어요.

- 동물을 만 거저안고, 아껴주세요! (학대하지마세요!)
- 동물에게 먹이를 주시지 마세요! (먹이)

이제부터 팔유가 넣어진 과자나 화장품을 쓰지 않고,
핸드폰은 되도록 오래 쓸 것 입니다. 그리고 동물원과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동물과 모든 동물의 소를 꼭 지켜주세요.

- 동물을 학대하거나 굶지 않아요!
- 동물은 사랑해주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부탁!)



1. 동물보호교육의 목적과 의의 2p

2. 강동구 내 초등학교 대상 동물보호교육 사업 3p

- ☐ 사업개요
- ☐ 지도로 보는 동물보호교육 현황
- ☐ 숫자로 보는 동물보호교육 현황
- ☐ 상세히 보는 동물보호교육 운영과 현장 사진

3.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9p

- ☐ 학생 참여자 만족도 조사
- ☐ 교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

4. 리뷰로 알아본 동물보호교육 11p

- ☐ 학생
- ☐ 교사

5. 제언 14p

부록 15p

- ☐ 카라 소개
- ☐ 강사 소개
- ☐ 학생설문지 양식
- ☐ 교사설문지 양식
- ☐ 활동자료 소개

1. 동물보호교육의 목적과 의의

카라는 2014년 현 더불어숨센터를 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기 전부터 이미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었다. 물론 만연하는 학대와 열악한 상황에 처한 생명의 시급한 사안을 다루는 것 또한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하는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의 권리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병행될 때 더 많은, 나아가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사람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와 마찬가지로 다른 동물들 또한 나와 다르지 않다는 공감과 공존의 의식 함양을 위해, 초기 카라의 교육은 어떤 결을 가져갈 것인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RSPCA) 조사 및 교육 종사자 전문가분들과의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 과정이 있었다.

그 결과 지속적인 교육 자료 발굴 및 제작(동물사랑교과서, 만5세 교수집, 동물친화적학교만들기 등)과 교육 전파를 위한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진행(서울, 제주, 부산 등), 동물책 전문 도서관 운영(북토크, 인문학 강연 등) 등 다양한 시도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냈다.



2. 강동구 내 초등학교 대상 동물보호교육 사업

사업 개요	배경	그동안의 교육 활동에 있어 아동/청소년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이유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동물에 대해 올바르게 건강한 인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교안 연구/개발과 시범 교육, 교사/강사 연수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진행 방향	특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강동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공기관과 협력하며 급진적인 성장을 해 왔다. 연간 몇천 명에 달하는 학생에게 생명존중 감수성의 씨앗이 움틀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카라에서는 그동안의 교육 경험을 토대로 완성도 있는 교안과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1회당 2교시 분량의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교육을 의뢰하는 기관 측에서는 학교와 학급을 모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교구 제작, 교육비 등) 측면을 담당했다.
	주요 사업 내용	가장 먼저 그리고 5년간 꾸준히 지자체 주도하에 동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모범 사례이자 대표적인 곳인 강동구의 경우, 지속해서 카라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2015년 시범 교육을 시작으로 강동구 내 교육 저변을 확대했다.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2013년 동물복지조례 공포 및 구청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등, 동물보호활동과 동물복지 측면에 선도적인 모습을 제시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구청장을 비롯하여 담당 팀 주무관, 그리고 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2015년 성공적인 시범 교육 경험을 토대로 2016년 본격적인 교육 사업 시작, 강동구 내 23개 학교, 415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학생과 교사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강동구 내에서도 지속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에 따라 2017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을 집중 대상으로 하여 2016년 2배 이상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어 2018년과 지난 2019년의 경우, 동물 교육 사업 예산 확충 및 지자체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어 카라에서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운영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실행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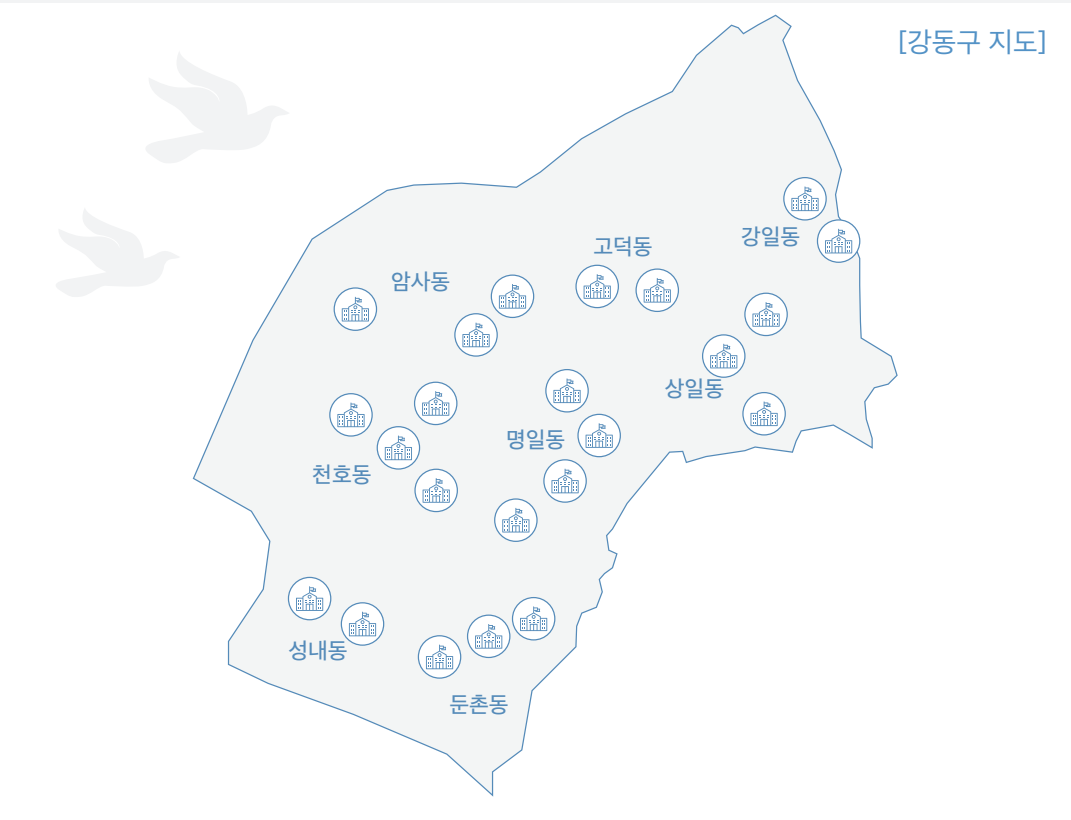
카라에서는 강동구와 함께한 5년의 교육 활동을 정리함으로 이후 타 지자체의 동물권 교육 참여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례 제시와 구체적인 예산 편성 독려를 하고자 한다.

[카라와 강동구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진행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업회차	11회	40회	87회	148회	128회
참여학생	340명	1029명	2045명	3629명	3075명

지도로 보는 동물보호교육 현황

강동구 내 27개 학교 중 23개 학교 동물보호교육 참여



숫자로 보는 동물보호교육 현황 (2016~2019)

※ 2015년 시범 교육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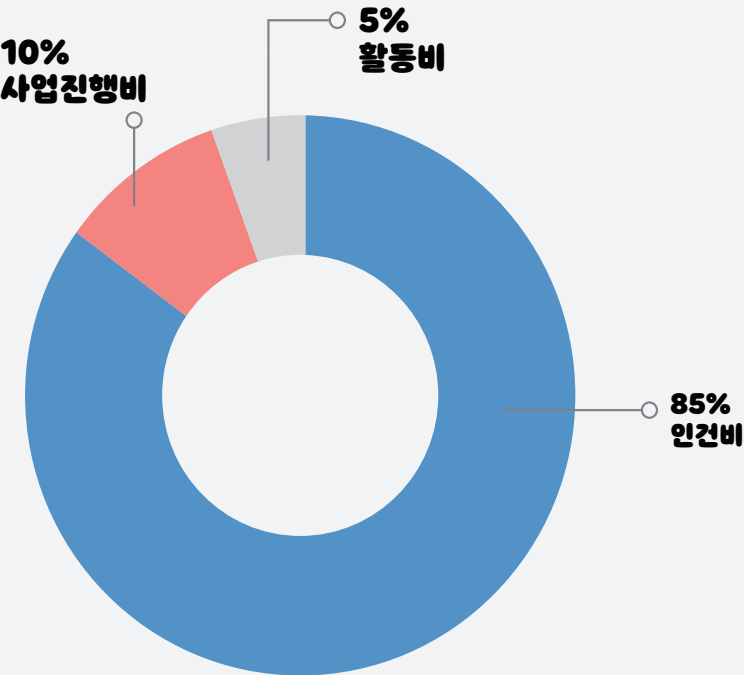
수업 진행 시간 40분 + 쉬는 시간 10분 + 40분 = 90분 (*초등 1교시 40분 기준)

학년별 학생 수 3학년: 7,431명 4학년: 749명 5학년: 992명 6학년: 579명



진행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교육 모집	교육 일정 및 강사 배정	1학기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실행			7월	하반기 교육 모집	9월	2학기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실행		보고서 작성

예산 내역 2019년 기준, 지자체 예산 2,000만 원, 카라 자부담 예산 200만 원 (지자체 예산의 10%)



인건비 1,800만 원
(교육 강사 128회 교육, 업무 보조 1인)

사업 진행비 300만 원
(강사 식비, 수업 활동지 인쇄비 등)

활동비 1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 구매비)

교육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교육 인원 : 한 학급 기준, 30명 내외
교육 장소 : 각 반 교실
교육 진행 : 276회
교육 참여 인원: 6,704명

교육주제와
교육내용 소개

①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까? 교육대상: 3학년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즐거운 기억이 떠오른 듯 초롱초롱한 눈으로 한 손을 번쩍 든다.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은 행복할까? 그 동물들은 동물원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동물원동물을 주제로 하는 이 교육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이라는 장소를 생각해본다.

동물원 동물의 일상을 살펴보면, 동물이 타고난 습성에 따라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을 고민해본다. 교육 참여자들은 동물원 동물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에 대해 배우고, 카라가 제작한 ‘짐승게임 으르릉’ 보드게임을 통해 놀이하듯 동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018.11월 길동초 3-4 | 짐승게임 으르릉 보드게임



2018.04월 천동초3-7 | OX 퀴즈



조류충돌을 막기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 버드세이버 붙이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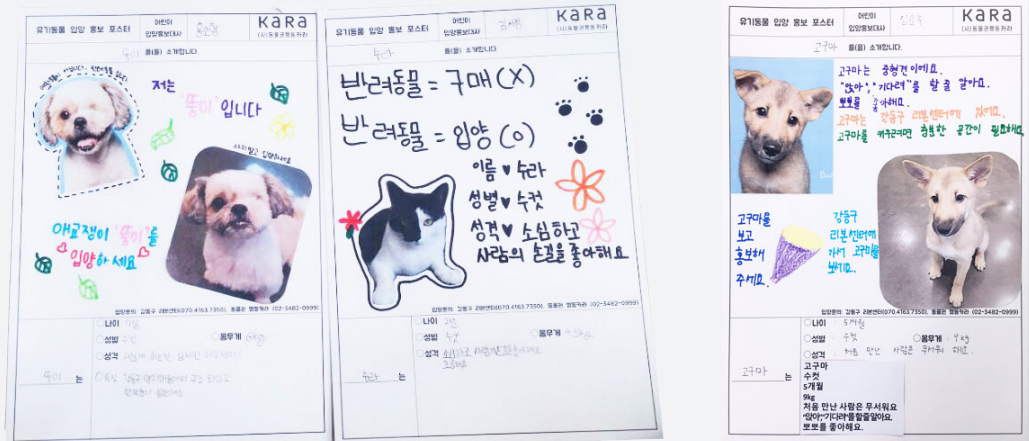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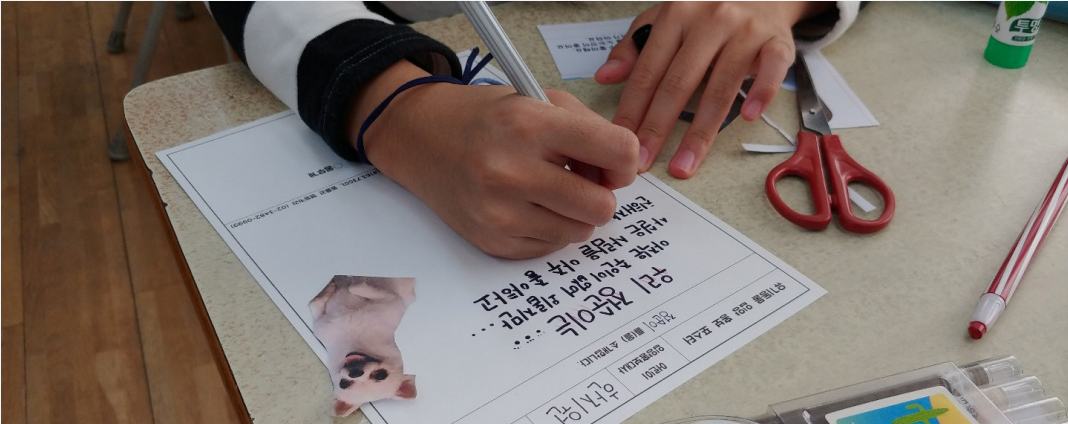
교육주제와
교육내용

② 반려동물, 또 하나의 가족 교육대상: 4~6학년

우리는 반려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이 교육은 퀴즈를 풀며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익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한다.

많은 사람에게 이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며, 평생 책임감으로 돌봐야 할 존재이다. 만약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다면 지금과 같이 심각한 유기동물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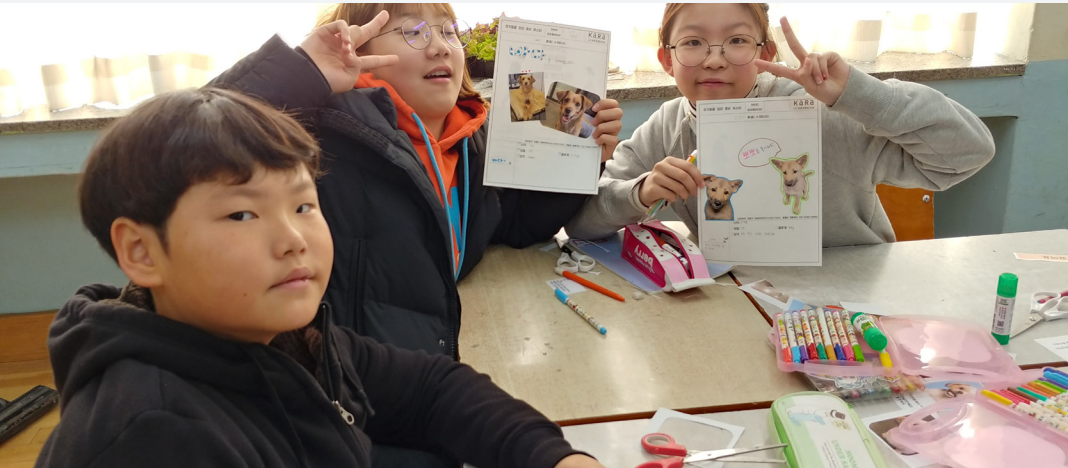
이 교육을 듣는다면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것, 사지 말고 입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카라와 강동 리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들을 위해 입양 홍보 포스터를 직접 꾸미며 입양 홍보대사가 되어 본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양 홍보 포스터 만들기 활동



2018.10월 강동초 5-3 | '할배 이야기' 영상 시청



2018.11월 강동초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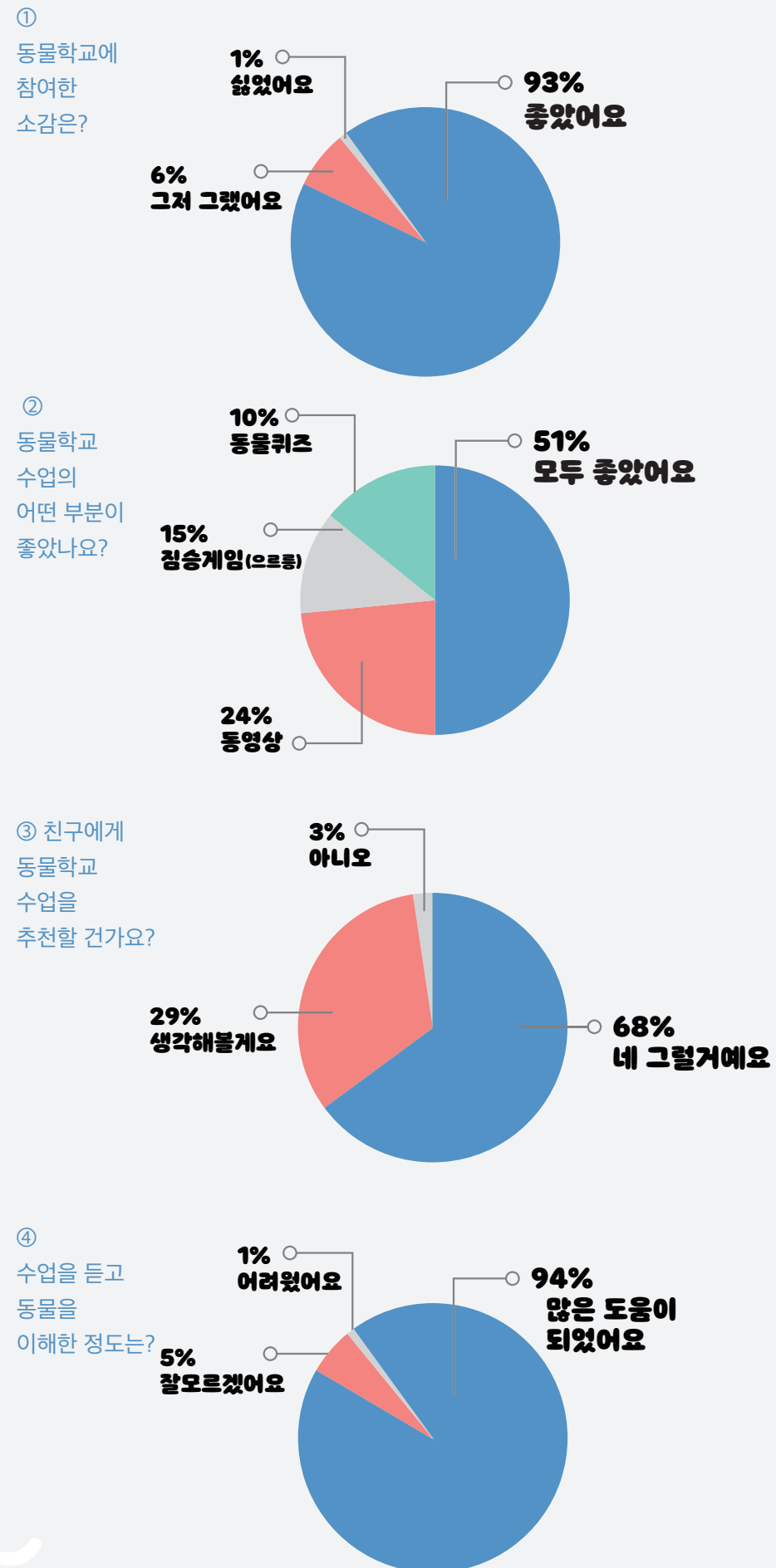
2018.11월 강동초 6-5 | 직접 꾸민 입양 포스터를 들고 리본센터를 방문, 입양 대상견 동이를 만나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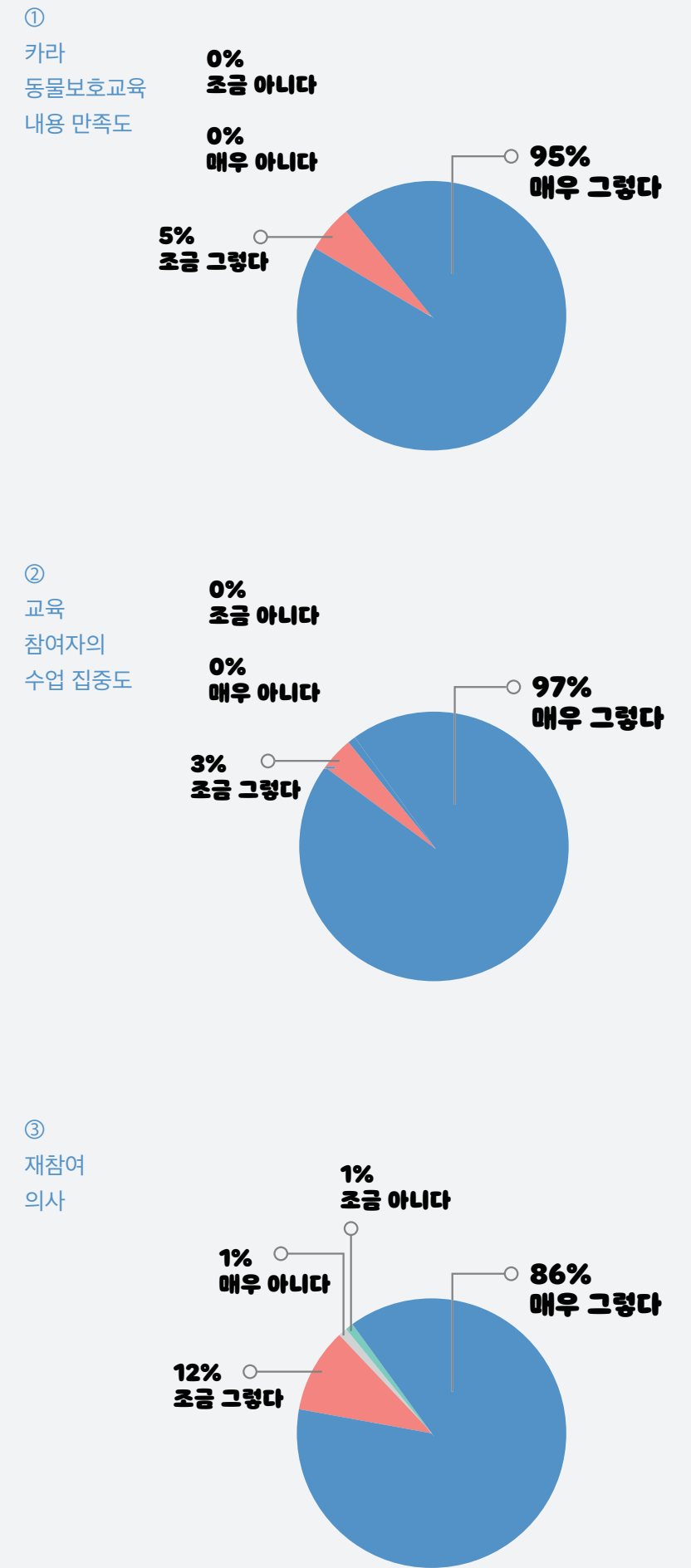
3.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2018~2019)

학생 참여자 만족도 조사 (6,704명 참여)



교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 (111명 참여)



4. 리뷰로 알아본 동물보호 교육

학생

① 교육을 통한 정보습득, 흥미 표현 (키워드: 재미, 또)

“몰랐어요. 알게 되었어요.” 등 동물을 주제로 한 수업내용에 관심을 표하는 학생들이 다수였다. 학생들은 각자의 경험을 떠올리며 몰랐던 것과 새로 알게 된 것을 구분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의 대부분은 동물들이 겪었을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공교육에서 접하지 못했던 정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저는 동물들한테 관심받고 싶어서 간식을 던져줬는데 동물들한테 큰 고통일지는 몰랐어요.
| 명덕초 3-4, 2018

• 이 내용을 듣고 무심코 한 것이 동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걸 알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 대명초 3-2, 2018

• 놀이터에서 다리가 뿌러진 제비를 보았는데 무더주고 지금 생각하니 그 쪽 위에 창이 있었어요.
| 천호초 3-6, 2019

• 동물을 학대하거나 굶지 마세요!
• 동물은 사랑받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박익선)

②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표현 (키워드: 왜?, “?”)

교육내용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은 왜 그래요? 더 알고 싶어요. 등 다양한 궁금증을 제시했다. 동물의 생태적 정보, 환경, 동물의 권리, 학대 여부, 처벌 등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종종 보였다.

• 체험동물은 몇 살까지 살아요? | 선린초 3-4, 2018

• 코끼리가 그 60년 동안 살 수 있는건가요?
코끼리는 발에 어떤 염증이 생기나요? | 천동초 3-1, 2018

• 우리 힘으로 밀렵을 막을 수 없나요? | 길동초 3-4, 2019

•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요?
| 천호초 3-5, 2019

• 강아지공장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 강덕초 5-5, 2019

• 동물들이 모두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 상일초3-1, 2019

• 동물의 사생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학생

③ 교육을 통한 감정 표현 (키워드: 속상해요, 부끄러워요, 화나요)

학생들은 슬펐어요, 불쌍해요, 미안해요, 속상해요, 부끄러워요, 화가 나요 등 교육을 통해 새롭게 접한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감정의 변화가 생겼음을 표현했다.

안타깝지만 밝은 감정보다는 다소 무거운 감정을 보였다. 특히, 그간 본인의 행동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까지도 부끄러워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 옛날에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타면서 느꼈어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간 게 너무 속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명원초3-2, 2018

• 동물들이 우리가 가둬놓고 스트레스 줘서 미안해,
다음에는 안 괴롭힐게 | 성내초3-7, 2018

• 동물 공연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즐겼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 성일초3-6, 2018

• 동물들은 정말 불쌍해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동물들을 때리는게 정말 싫어요. | 명덕초3-4, 2019

• 동물쇼를 하는 사진을 볼 때 동물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 강슬초 3-샘, 2019

• 동물은 만 거저받고, 아껴줘요! (학대하지 마세요!)
•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학대하지 마세요!)

④ 교육을 통한 다짐을 표현 (키워드: 이제부터 앞으로)

학생들이 교육 후 “하면 안 돼요, 하지 않겠습니다. 할 거예요” 등의 표현을 통해 앞으로 동물을 위한 실천적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다짐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다짐도 다수였다. 학생들에게 실천 할 수 있는 다짐을 적어주길 요청하니 어린이의 순수함이 담긴 다짐도 눈에 띄었다.

• 이제부터라도 과자를 조금 먹어야겠다. | 길동초3-4, 2018

• 저는 동물들을 위해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가능하면 안 먹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스마트폰 사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 성내초 3-3, 2018

• 만약 내가 동물을 키운다면 수업시간에 배운대로하고 절대 버리지 않을거예요. | 강덕초 5-3, 2019

• 6월에 돌고래쇼를 보러 갔는데 이전 쇼를 보러가지 않을거예요. | 명원초3-2, 2019

• 중요하고 재밌었던 부분을 친구들과 부모님께 알려드릴거예요. | 명원초 3-2, 2019

• 이제부터 담뱃가 넣어진 과자나 화장품은 쓰지 않고,
핸드폰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거입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에 티켓을 지킵니다.



4. 리뷰로 알아본 동물보호 교육

교사

① 수업 진행에 대한 평가와 리뷰

“선생님의 차분한 진행과 적절한 자료도입, 수업시간 분배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동물사랑 실천,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흥미롭게 접근하여 수업해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교육에 참관한 교사들은 동물권교육 강사와 카라 활동가가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점과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②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와 리뷰

“동물교육은 처음 해봤는데 아이들에게 무척 도움이 되었고 강사선생님의 수업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주제 (동물의 권리, 동물원의 동물)가 매우 좋았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수업해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평소에 “동물”이라는 주제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연령대에 맞는 수업내용이었기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함께 수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몰랐던 내용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 동물보호의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으며, 동물뿐 아니라 생명존중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평소에 교육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주제임을 아쉬워했다.

교사들은 교육 시간이 길어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다양한 영상을 추가하거나 동물을 주제로 그리기, 만들기, 퀴즈, 협의 토의 등 참여형 활동을 더욱 확대하길 요청하기도 했다.

③ 추가교육 요청

“초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가지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할 점을 알려주세요”

카라의 동물권 교육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 108중 22명은 원하는 교육 주제를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을 주제로 한 교육을 12명이 요청하여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길고양이, 공장식축산과 동물복지 등 다양한 동물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길 원했다.



5. 제언

공교육 내 동물권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카라는 공교육 교과과정에 동물권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간 사업으로 해당 지역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고,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동물사랑교육 교재 제작 과정에서 자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3년간 시범 교육을 거쳐 2018, 2019년 2년 동안 본격적으로 진행한 강동구 프로젝트의 사업 결과는 동물보호교육이 정규 과정으로 편입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교육 수혜자의 수업 만족도가 높고 동물보호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재교육 요구 또한 높다. 하지만 본 교육은 일회성으로 진행되었고 재교육을 확대하기 어려웠다. 각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매해 같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동물권교육을 공교육 교과과정에 넣기 위해서는 각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육 자료 연구와 교사 대상 교육, 교사 연수 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카라는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후보자 29명의 답변에 따르면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정책 질문에 90%가 동의 의견을 밝혔고 생명존중,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보호교육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서울시와 울산시의 공약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생명존중-동물사랑 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 공약 이행률이 45.5%(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생명존중 초등 동물사랑교육 지원’ 공약 이행률이 33.3%(울산시 교육청 홈페이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중학교 자유 학년 주제 선택 활동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를 제작하기도 했다. 앞으로 동물보호교육이 확장되고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피드백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슬로건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비전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미션	시민들과의 지식과 배움의 공유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참여를 확대하며 폭넓은 연구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문화와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한다.
	소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 봉사자들의 모임인 '아름품'으로 시작되어 동물과 평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입양확산과 유기견 절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서부터, 산업계의 반생명적인 동물착취에 저항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카라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전시·체험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길고양이 등 위기에 처한 모든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간 카라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더불어숨센터를 중심으로 외면당해온 동물들의 실상을 알리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교육, 캠페인, 법/정책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제 카라는 2020년 4월 파주의 카라 더봄센터 건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봄센터는 유기와 학대로부터 구조된 200여 마리의 동물이 지낼 수 있는 공간, 지역 주민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든 시민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뤄집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동물과 인간의 바람직한 공존의 상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동물권 단체가 되고자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함께 나아가는 길에 동참해주시기를 염원합니다.

카라 홈페이지 : www.ekara.org
 카라 동물권 교육 : www.karaedu.org
 카라 더봄센터 : paju.ekara.org
 카라 이메일 : info@ekara.org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이메일: edu@ekara.org
 카라 대표전화 : 02-3482-0999

강사 소개

김지현	동물권 신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동물보호교육 강사가 되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감수성이 자라면 비인간동물을 존중할 뿐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모든 학교에서 동물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날을 꿈꾼다.
박경림	동물권교육 현장에서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카라의 교육 활동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문제 등에도 너른 관심을 두고 있다.
손소영	첫 고양이, 달봉이를 만나면서 인생이 변했다. 길고양이를 비롯한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7년 전부터 동물보호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의 수업을 들은 학생이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난 길고양이, 개미 한 마리라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면 행복하겠다.
신지민	동물을 이미 충분히 아끼고 좋아한다고 생각했었으나 동물보호에 관해 공부한 후 그 전보다 더 커진 생명감수성을 보고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동물보호 실천 방법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주변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안혜숙	카라에서 2013년부터 교육강사 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동물 사랑하는 서울시민
이화연	2014년 카라 동물보호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교육 현장에 함께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맑은 눈빛을 마주하며 외면받은 동물의 권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어린이들 마음에 생명감수성이 싹트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경지	내가 초보 입양 반려인으로 시작해 많은 생명으로 마음이 옮겨갔듯이 나와 함께한 학생들도 언젠가 그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간 활동이었다. 지금의 내가 환경운동을 하면서도 매번 그 속에서 동물을 찾아내 살피듯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더라도 주위의 생명을 찾아보고 살필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주길.



2019 찾아가는 동물학교 설문조사

나의 의견을 전하고 싶어요.

문항별로 공감하는 지문을 ()안에 선택해 주세요.

1. 동물학교에 참여한 소감은? ()

- ① 네, 좋았어요. ② 그저 그랬어요. ③ 싫었어요.

2. 동물학교 수업의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

- ① 동물 퀴즈 ② 동영상 ③ 짐승 게임(으르릉) ④모두 좋았어요.

3. 친구에게 동물학교 수업을 추천할 건가요 ? ()

- ① 네, 그럴거예요. ② 생각해볼게요. ③ 아니요.

4. 수업을 듣고 동물을 이해한 정도는? ()

- ①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② 잘 모르겠어요. ③ 어려웠어요.

5. 수업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주관식)

담임교사·담당자용



2019 카라 동물권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오늘 동물권 교육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1. 동물권 교육에 참관하셨나요?
① 전체 참관했다 ② 대부분 참관했다 ③ 일부만 참관했다 ④ 거의 참관하지 않았다
2.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조금 아니다 ④ 매우 아니다
3. 교육 내용이 흥미로웠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조금 아니다 ④ 매우 아니다
4. 교육 내용이 유익했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조금 아니다 ④ 매우 아니다
5. 교육 참여자(학생)의 수업 집중도가 높았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조금 아니다 ④ 매우 아니다
6. 강사와 교육 참여자(학생) 간 소통이 원활했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조금 아니다 ④ 매우 아니다
7. 강사가 교육 현장에 제때 도착했나요?
① 미리 도착했다 ② 정시 도착했다 ③ 5분 이하 지각했다 ④ 5분 초과 지각했다
8. 강사의 수업 준비는 문제없었나요? [복수 응답 가능]
① 준비가 완벽했다 ② 교구 준비가 부족했다 ③ 강의 준비가 부족했다
9. 카라 동물권 교육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조금 아니다 ④ 매우 아니다

※ 아래 질문은 답변을 직접 적어주세요.

10. 특히 좋았거나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1. 카라 동물권 교육에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희망하는 교육주제를 알려주세요.
12. 기타 건의나 문의, 교육 참여 소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KARA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까? 오늘 수업 돌아보기!

• 동물을 위한 다짐을 보기에서 찾아 숫자를 말풍선에 써 보세요



수달



북극곰



돌고래



코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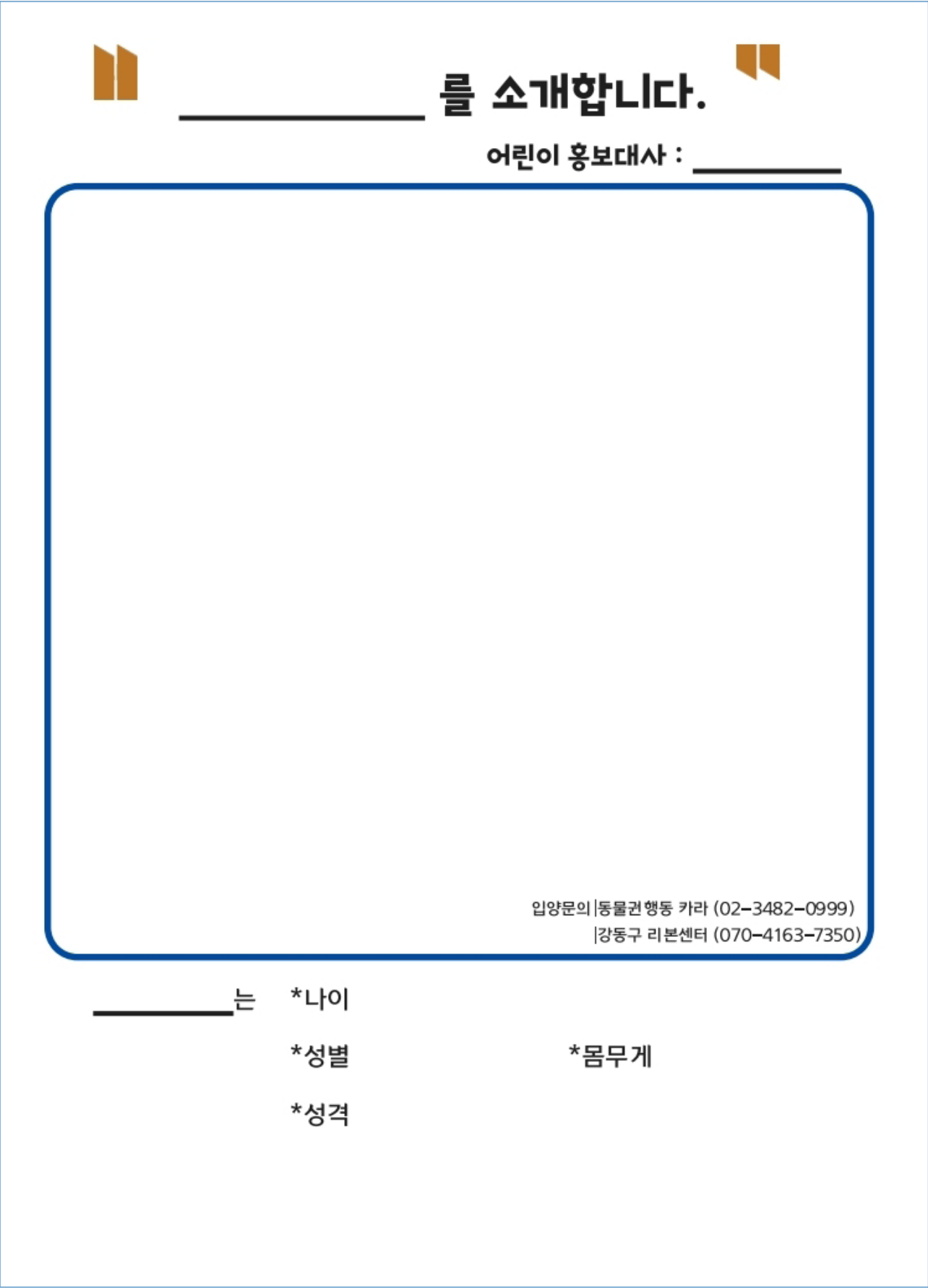
고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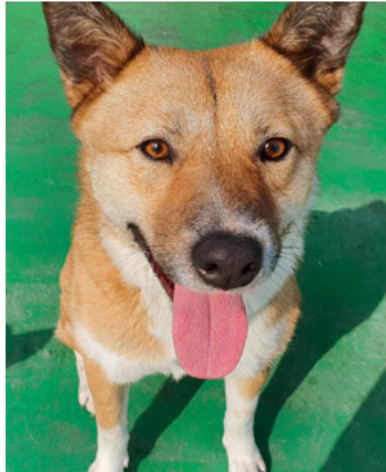
보 기

- ① 수족관은 000에게 매우 비좁은 공간입니다. 000쇼를 보지 않겠습니다.
- ② 기후온난화 때문에 000이 갈 곳을 잃고 있어요.
- ③ 아주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000 등에 타는 체험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④ 강가에 사는 00은 물고기, 참개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물고기 가시나 비늘이 섞인 동을 줍니다.
- ⑤ 창문에 아크릴물감을 촘촘하게 찍어 버드세이버를 완성했습니다.
- ⑥ 휴대폰을 많이 사용 할수록 000 의 서식처는 줄어들어요. 휴대폰을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 ⑦ 개미나 거미 같이 흔한 곤충도 마구 대하지 않습니다. 곤충은 지구 동물의 80%를 차지합니다.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동물권행동
카라



복돌 | 수컷, 2살, 25kg

복돌이는 주말농장에 버려졌어요. 덩치는 크지만 아주 순둥이예요. 장난감을 좋아해요.



비담 | 수컷, 4살, 11kg

비담이는 잠이 많아요. 폭신한 방석에서 낮잠을 즐겨요. 간식을 주면 잘 받아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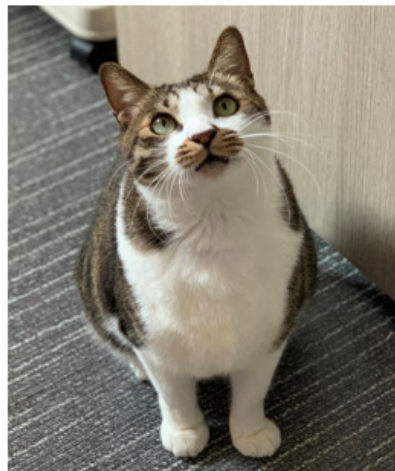
스카이 | 암컷, 2살, 12kg

스카이는 아주 튼튼한 몸을 가졌어요. 스카이의 형제들은 모두 가족을 만났어요.



환희 | 수컷, 10개월, 3.5kg

환희는 벽 틈에 빠져 구조됐어요. 오래 굶었지만 지금은 아주 건강해요. 장난감을 좋아해요.



벼리 | 수컷, 5살, 7.2kg

낯선 사람에게도 인사를 잘해요. 아주 순둥이라서 고양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구르미 | 암컷, 3살, 4kg

눈이 잘 안 보이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조용한 성격이에요. 사람의 손길을 좋아해요.

발행일 | 2020년 2월
발행처 | 동물권행동 카라
발행인 | 임순례
집필 | 박선미, 간현임, 김명혜, 김민영

(사)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T. 02-3482-0999 | F. 02-3482-8835